



산업생산 및 제조업 실적 악화, 향후 전망 더욱 어두워

박정희 선임연구원

■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8월 산업생산이 전월대비 1.3% 감소했다고 발표했으며, 이는 당초 0.5% 감소를 예상한 시장전망치를 하회하는 수준임.

- 일본의 산업생산이 2개월 연속 위축된 것은 외교 마찰로 중국 수요가 급감한 데다 유로존 재정위기로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둔화되었기 때문임.
 - 아시아 경쟁업체들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휴대전화 액정이나 반도체 메모리 등 전자산업이 5.2% 줄어들면서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음.
 - 업종별로는 16개 업종 중 11개 업종의 산업생산이 감소했으며, 정보통신은 액정 TV의 생산 조정 등의 영향으로 6.4% 감소하였고 수송기계는 자가용 생산 감소로 0.4% 줄어들었음.
- 한편, 9월 제조업 생산 예측 조사에서는 2.9%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 3분기에도 일본 경제는 후퇴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임.

■ 일본은행이 발표한 9월 단기경제관측조사에서도 대형 제조업체들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단간지수가 마이너스 3으로 나타나 전분기보다 2포인트 악화되었음.

- 자동차, 철강, 건설기계 등의 업종에서 단간지수 부진이 두드러졌는데, 이는 재정위기가 심화되는 유럽에서의 자동차 판매부진과 중국 건설경기 정체의 영향이 반영된 것임.
 - 특히 단간지수는 최근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해 일본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냉각되고 있음을 시사함.
- 일본 기업들의 경기전망 비관론이 지속되면서 일본은행이 시중에 유동성을 푸는 추가 양적완화 압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.

(산케이 외, 10/1)